사 설

스물일곱 돌의 출발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가 드디어 발족됐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운동본부의 출범은 우리생약살리기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생약협회의 또다른 출발의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지난 94년 이종용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생약살리기는 그동안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한 우수국산한약재전시회,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개설, 한약재의 올바른 이용법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등 새롭게 시도한 다양한 행사들은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량품종육성 차원에서 지황종근개량사업에 참여 '지황1호'를 탄생시키는 쾌거도 올렸다. 특히 지난해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의 개설은 엄청난 파장으로 주변 한약상가들의 변화를 몰고 왔다.

'국산한약재상설매장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가들은 너도나도 국산약재전문매장임을 표방하는 간판을 앞다투어 내걸었다. 그러나 국산약재가 단순히 상가의 매출액 신장을 위한 하나의 악세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사실, 초창기 우리생약살리기는 주변업계로 부터 '환영받지 못한 운동'이었던게 사실이다. 지금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의 출범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상당수다. 제약업계에서는 또 그들대로 엑스제수입이다 식품원료 수입이다 해서 생산농민들의 재배의욕을 꺾어 놓기 일쑤다.

결국 이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련업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생약살리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수입개방화 시대,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무조건적인 애국에 호소하는 식의 수동적인 우리생약살리기는 어차피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구호가 아닌 생활 속에서 일반 소비자와 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우리생약 살리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약재와 비교해 우리약재가 갖고 있는 성분이나 효능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거는 기대도 크다.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생약살리기가 하나의 '반짝상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긴 생명력을 갖고 우리 한방계에 뿌리 내릴수 있기를 바란다.

제27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 현판식에 이어 거행된 이날 27차 정기총회에는 농산물검사소 신순우 소장, 농림수산부 이덕로 원예특작과장을 비롯 경동약령시협회 윤영진 회장, 대한한약협회 윤제은 회장등이 내빈으로 참석, 자리를 빛냈다. 한편 3월31일자로 임기만료된 감사직에는 허영 공판장장, 최맹호 소장이 연임됐다.

〈편집자 주〉

생약인의 다짐

○…이날 총회에 참석한 생약농가대표 2백여명은 국내 생약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고, 수입개방화에 대응 청정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감사패 전달

○…생산농가대표로서 또 생약협회회원으로서 일년동안 회세신장과 우리생약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들에게는 생약협회장 이름으로 표창패가 각각 수여됐으며 국립농산물검사소 신순우소장(전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장), 종자공급소 서기호 소장, 백구한의원 강재만 원장에게도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표창패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대기(강원도 태백시 공판장장) △김원복(강원도 삼척군 사무소장) △황정근(경기도 동두천시 사무소장) △채화식(충북 청주시 서부사무소장) △윤동찬(충남 온양시 사무소장) △김동윤(전북 무주군 공판장장) △장영철(전남 광양군 사무소장) △허영(경북 김천시 공판장장) △허영호(경남 하동군 사무소장) △최맹호(부산 금정구 사무소장)

청정약재 생산 다짐, 엑스제 사용 자제 촉구

원안대로 통과

○…지난해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한 지황계약재배가 수확후 4개월이 넘도록 실수요자 측과 수매가격을 놓고 타결을 보지 못한 채 농가에서는 정작 96년 지황재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편이라고 회원들은 지적하고 올 지황계약재배 여부에 대한 협회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총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의 잡음이 일기도.

지난해 수해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지황뿌리가 썩어나가고, 이들 농가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지황종근값이 7천만원에 달해 협회 안정기금의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지황종근 개량사업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회원들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처음의 시행착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95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96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도 원안대로 순조롭게 통과됐다.

감사 보고

○…허영감사는 감사보고에서 『공판장활성화도록 삼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안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보다 각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과 회비 미납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엑스제수입자제촉구

○…한편 이날 총회참석 회원들로부터 제약사들의 엑스제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기도 했는데 협회는 대자보를 통해 『제약원료용으로 소용되는 한약재의 80% 이상이 수입엑기스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국산약재의 판로가 위협받고 생약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국내 생약농업의 어려운 현실은 국내유일의 생약생산자단체인 우리가 앞장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정부 건의문

우리는 국민경간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생약재 배농민들로서 국내생약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과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6만 생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생약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배려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한약재로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식품원료로의 변칙수입을 막고 약재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을 촉구한다.

－국내 생약재배농가의 판로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의 엑스제 수입 금지와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국내 생약농업의 장기적 대책안 수립을 기대한다.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량품종을 육성보급하고 선진화된 양질의 생약 생산기술을 개발, 지도해 줄 약초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건의한다.

－국내에서 자생·재배되는 약재를 상설 전시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산약재 상설전시관의 건립을 정부에 건의한다.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 슈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1. 파종, 복토, 비닐멀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점파할 수 있으므로 발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멀칭으로 인해 발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초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초작업이 용이합니다.
5. 파종간격이 일정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슈퍼씨비닐 적용작물 종자 소요량 (250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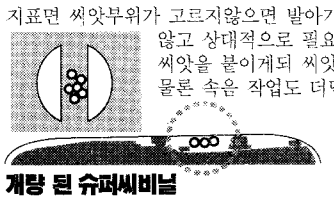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황 기	5 홉	더 덕	10 홉
황 금	4 홉	우 슬	15 홉
도라지	15 홉	현 삼	3 홉

기타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가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율이 뛰어납니다.

기존 씨비닐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붙이게되 씨앗 소비는 물론 속음 작업도 더딤



개량 된 슈퍼씨비닐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극소화됨

씨닐農産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302호 TEL: 449-8280~1

'96년 슈퍼씨비닐을 선택해주신 농촌 작목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